

1688년 조선 濟州島에 표착한 潮州 출항선 기록 검토

박 현 규*

一. 서론

중국 대륙의 동쪽에는 거대한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고, 1.8만km의 해안선과 6천 5백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다와의 상관성을 갖게 했고, 특히 연해안 지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시켜 해양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광동 潮州과 南澳, 복건 漳州와 泉州, 절강 寧波와 普陀는 각각 대륙 중부와 남부 연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예로부터 해상 활동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졌고, 이들 지역민은 활발한 해상 활동을 전개하여 찬란한 해양 역사와 문화를 창출해왔다.

바다는 평상시 잔잔한 해면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마치 어머니의 넓은 가슴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날씨가 험해지기만 하면 세찬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 해면이 크게 출렁이며 성난 마귀처럼 변하곤 한다. 평생 바다를 업으로 살고 있는 뱃사람들도 바다의 가변성에 대해 잘 알고 항상 대비를 하지만, 급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선박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조난을 당하곤 한다. 이때 뱃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험한 파도 속에 떠밀려가다가 많은 이들이 물에 빠져 죽지만, 더러는 운이 아주 좋게도 다른 선박에 구조되거나 땅에 닿아 용케 생존해오곤 한다. 생존자 가운데에는 드물지만 멀리 외국의 땅에 닿는 경우가 있다.

*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전공 교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예로부터 외국 표류인을 구휼하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제도가 정비되어있었다. 해외 표류기록물은 표류인의 국가와 표착 국가의 각종 사정을 알아보는 중요한 자료이다. 오늘날 국내 학자들의 표류인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왔지만, 주로 일본과의 표류 관계 연구이고, 중국과의 표류 관계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국내 학자들의 표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종합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사례를 두고 심층 분석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1688년(조선 숙종 14: 청 강희 27)에 潮州 출항선이 항해를 하다가 약천 후로 한반도 제주도 연해안에 표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선에는 주로 粵東과 閩南, 즉 남방 상인과 수부들이 타고 있었다. 역관 출신 金指南은 남방 표류인들이 표류한 사정을 알아보고 조정에 보고할 <手本>을 작성했고, 조선 비변사는 표류인을 청나라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본 논문에서는 1688년에 일어난 표류 사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김지남 <手本>,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을 중심으로 조주 출항선의 구성원과 항해일정, 중국 해역정세와 물품교역 과정, 제주도 표착 내용과 심문 과정,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과정 등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볼까 한다.

二. 潮州 출항선과 표류인의 기록 출처

1688년(숙종 14)에 제주도에 표착한 潮州 출항선의 표류인에 관한 기록은 김지남의 《東槎日錄》, 조선 조정의 《承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에 수록되어있다.

여기에서 먼저 김지남의 약력부터 살펴본다. 그의 자는 季明이고, 호는 廣川이며, 본관은 牛峰이다. 그는 1654년(효종 5)년에 戶曹算士 金汝義의 아들로 태어났다. 1672년(현종 13)에 역과 시험에 18세로 급제하여 한어 역관으로 나갔다. 1682년(숙종 8)에 역관으로 청나라와 일본을 다녀오는 것을 필두로 대외관계의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1714년(숙종 40)에 아들 金慶門과 함께 역관 제도의 연혁, 대외관계 제도 등을 체계화한 《通門館志》를 편찬했으며, 1718년(숙종 44)에 별세했다. 그의 아들 5명은 모두

한어역관이었다.

《동사일록》은 김지남이 1682년(숙종 8)에 押物通事로서 일본을 다녀 오면서 관찰한 사항을 기술한 사행일기이다. 이 책자는 필사본 1책인데,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일본을 왕래했던 通信使들의 사행록을 모아 편집한 총서 《海行摠載》에 수록되어있다. 《해행총재》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조선말기필사본이 소장되어있다. 1914년 朝鮮古書刊行會에서 조선말기필사본을 대본으로 삼아 신식활자로 간행했고, 1975년 民族文化推進會에서 각각 국역본과 영인본을 내놓았다. 《동사일록》은 일본 사행을 가는 기간과 되돌아오는 기간에 따라 <東槎錄>과 <回槎錄>으로 나누어놓았다. <회사록> 끝 부분에 일본 사행록과 성격이 다른 청나라 표류인을 問情한 기록문인 <戊辰九月初四日濟州漂漢人廻問情手本>이 첨부되어있다. <戊辰九月初四日濟州漂漢人廻問情手本>은 1688년(숙종 14) 9월 5일에 작성되었다. 현존본 김지남 <手本>은 글자 오기가 다소 많은 편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초기부터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과 제반행정을 담은 일기책이다. 승정원은 1894년(고종 3) 이후 承宣院·宮內府·秘書監·秘書院 등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인조 이전의 《승정원일기》는 여러 차례 병화로 소실되고, 오늘날 전해오는 것은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隆熙 4)까지 288년간의 일기이다. 《승정원일기》 원본은 奎章閣에 소장되어있고, 1999년에 국보 303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자 중 숙종 14년 7월 30일(경자)조, 9월 6일(을해)조, 15일(갑신)조, 19일(무자)조, 20일(기축)조, 22일(신묘)조에 각각 1688년(숙종 14) 제주도에 표착한 조주출방선의 표류인을 처리하는 기록들이 수록되어있다.

《비변사등록》은 1617년(광해군 9)부터 1863년(고종 2)까지 조정의 국가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책자이다. 이 이후 1892년(고종 29)까지 議政府가 비변사 업무를 대신하여 《議政府騰錄》을 남겼다. 규장각에 전해오는 《비변사등록》은 상당수 빠진 부분이 있다. 1973년에 국보 152-1호로 지정되었다. 이 책자에 기술된 조주출항선 제반 기록은 《승정원일기》와 일치하고, 다만 9월 20일(기축)에 비변사에서 표류인을 다시 심문한 별단(<濟州漂漢人間情別單>)이 첨가되어있을 뿐이다. 별단 내용은 김지남의 <手本>과 별반 차이가 없다.

三. 潮州 출항선의 구성원과 항해 일정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조주 출항선의 항운 일정과 표류 과정, 조선 조정에서 표류인을 처리한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본다.

1687년(숙종 13년; 강희 26년) 봄: 고향을 떠나 보타 조선소 도착.

1688년(숙종 14년; 강희 27년) 3월 3일: 영파부에서 새로 건조한 선박을 출항.

3월 23일: 조주 烏丁(鷓汀)港 도착. 곧이어 화물을 선적함.

6월 4일: 남오 출발.

6월 10일: 보타에 도착하여 寧波府 部衙로부터 文狀을 취득.

6월 16일: 보타에서 출발하여 南京, 蘇州 등지로 항함.

6월 18일: 악천후로 조난을 당함.

6월 말경: 제주도 해안에 표착함.

7월 30일 備邊司가 표류인을 한양과 北京으로 호송할 역관을 정해줄 것을 啓聞함.

9월 3일: 표류인이 海南 於蘭鎮으로 이송해오자 역관 김지남이 나가 맞이함.

9월 4일: 김지남은 표류인을 해남 관사로 이송하고 표류 사정을 탐문함.

9월 6일: 備邊司가 청나라 북경으로 咨文을 보낼 것을 啓聞함.

9월 19일 비변사가 표류인을 한양 南別宮에 머물고 표류사정을 다시 問情함을 啓聞함.

9월 20일: 비변사가 표류인을 이송할 비용을 조정에 청구함.

9월 22일: 표류인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청나라 鳳凰城으로 항함.

김지남의 <手本>에는 제주도에 표류한 조주 출항선에 탄 상인과 수부들의 명단이 기술되어있다. 조주 출항선에는 총 63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주도 연해안에 표착하기 직전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15명만 살아나고, 나머지 48명은 익사했다. 표류 상선에 탄 사람들을 지역별과 신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潮州	南澳	漳州	泉州	廈門	福州	寧波	불명
생존자	상인	2	0	1	2	0	0	0	0
	선원	5	1	2	0	0	2	0	0
익사자		16	1	8	14	1	2	5	1
총계		23	2	11	16	1	4	5	1

승선자의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潮州 사람이 2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원수 중 36.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泉州 사람이 16명으로 25.4%, 漳州 사람이 11명으로 17.5%를 각각 차지한다. 생존자 가운데 수부 출신은 조주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장주 사람과 福州 사람이 각각 2명이다. 익사자 가운데는 조주 사람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천주 사람이 14명, 장주 사람이 8명 순이다. 김지남의 <手本>에는 익사자의 신분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생존자의 기록으로 계상해보면 상당수가 수부이고, 일부가 상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南澳는 옛 조주부와 장주부가 각각 분할 관할했던 海島이나, 민국 이후 광동성으로 편입되었다. 《비변사등록》 <제주표한인문정별단>에는 船戶 楊登興의 출신을 남오와 조주가 번갈아 적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남오 지역을 관리하는 관청 체제의 특수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조주와 남오, 즉 粵東 지역인은 총 25명으로 전체 인원수의 29.7%를 차지한다. 천주, 장주, 廈門은 閩南 지역에 속한다.¹⁾ 민남 지역민은 총 32명으로 전체 인원수의 50.8%를 차지한다. 월동 지역과 민남 지역의 사람을 합치면 총 53명으로 전체 인원수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楊登興은 43세로 남오섬 출신이다. 《비변사등록》 <제주표한인문정별단>에 의하면 양등흥이 24세, 즉 1669년 강희8년에 許摠督을 따라 북경을 왕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찍부터 중국 남북을 오가면서 뱃길을 잘 알고 있는 수부이다. 기타 수부의 구성원은 조주, 천주, 장주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財主 沈電如是 50세로 장주 사람이고, 財付 陳梓는 31세로 천주 사람이며 財付 劉鳳은 30세로 조주 사람이다. 이들 세 사람은 사리를 이해하고 글자를 알고 있어 김지남과 표류 사정을 얘기할 적에 모든 응대를 맡았다. 沈電如是 집에 팔순 부모가 있었

1) 현존본 김지남의 <手本>에는 익사자 黃씨 출신을 下門 사람으로 적었으나, 下門은 廈門의 오기이다.

다. 객상 曹泰(《비변사등록》에는 曹太라고 적음)는 30세로 조주 사람이고, 객상 薛為政은 31세로 천주 사람이다. 영과 사람 5명은 절강 普陀에서 태워 蘇州 등지로 향하는 객상일 가능성이 높다. 상인 출신도 선원 출신의 구성원이나 재주·재부의 출신처럼 조주, 천주, 장주 사람으로 주로 구성되었고, 기타 지역 사람이 일부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주 출항선은 제주도에 표류하기 반년 전에 普陀 소재 造船所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이다. 보타는 양과 동쪽 바다에 위치한 舟山群島의 한 섬이며, 오늘날 행정구획으로 절강 舟山市 普陀區에 속한다. 주산군도는 절강 최대의 어업기지답게 沈家門을 비롯한 여러 항구에서 수많은 어선들을 정박시키고 있다. 이곳에는 선박을 건조하는 소규모 조선소가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전통 방식으로 고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남아있다.

보타도는 해상 교통의 요지이다. 보타도는 영과 앞 바다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대륙 남북이나 외국으로 드나드는 배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또 보타도는 관세음신앙의 본거지이다. 뱃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영험한 능력으로 선박의 항해 안전을 도모한다고 믿고 있어 보타도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관세음보살상으로 나가 향불을 올리곤 했다.²⁾ 그 실례로 보타도에 신라선박들이 자주 좌초했다는 新羅礁와 고려선박이 드나들었던 高麗道頭가 남아있고, 일본화상 慧鑄이 신라상인과 함께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관세음보살상을 내려놓은 不肯去觀音院이 있다.³⁾ 조주 출항선도 보타도에 정박하여 종교활동과 교역업무를 수행했을

2) 張津 등 《(乾道)四明圖經》 권7 <昌國縣·山>: 「梅岑山, 在縣東二百七十里, 四面環海. 高麗·日本·新羅·渤海諸國, 皆由此取道, 守候風信, 謂之放洋。」

盛熙明 《(至正)補陀落迦山考》 <感應祥異品>: 「(보타산)自是海東諸夷, 如三韓·日本·扶桑·阿黎·占城·渤海數百諸國, 雜商鉅舶, 繇此取道放洋. 凡遇風波寇盜, 望山禱命, 即得消散感應頗多.」(《(萬曆)普陀山志》 권4 <事畧·補陀落迦山考>에서 인용)

3) 金文經: <七~十世紀新羅同江南的文化交流>, 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研討會, 中國杭州大學, 1996.1.24~25; 《中國江南社會與中韓文化交流》, 杭州出版社, 항주, 1997.6, 쪽 60~65.

曹永祿: <중국 普陀山 관음도량과 한국: 보타산 不肯去觀音殿은 제 2의 낙산 흥련암>, 中國江南地域과 韓中交涉, 東國大學, 1999.10.17; 《한중문화교류와 남북해로》, 국학자료원, 서울, 1997.10. 쪽 13~34.

朴現圭, <中國 佛教聖地 普陀山 與 新羅礁>, 浙江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03年 1期, 浙江大學, 2003.01.10, 쪽 39~46.

것이다.

1648년(강희 23)에 청나라 조정은 閩粵 지역의 海禁 조치를 풀면서 바다에서 교역하는 민간상선의 규모와 시설에 대해 제한 사항을 부가했다. 민간상선은 쌍 돛대와 8개 노(雙桅八槳)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적재량이 5백 석을 넘는 大船을 건조할 수 없게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중벌에 처했다.⁴⁾ 훗날 청나라 조정은 쌍 돛대를 허용하는 등 설치 규정이 조금 완화되었지만, 오랫동안 선박 크기와 항해 필수비품에 대해 일정 정도 이하 규모로 제한을 시켰다.⁵⁾ 조주 출항선이 표류하게 된 주된 원인이 약천후에 의해서 일어난 변이지만, 돛대가 세 토막으로 부러지고 키가 조각난 점으로 보아 선박 크기와 시설 제한에 따른 문제점도 내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주 출항선은 조주 烏丁(鷓汀)港을 母港으로 두고, 절강과 강소 지역을 오가며 물자 교역과 운송을 맡았다. 烏丁은 원래 鷓汀이라고 불렸고, 훗날 문헌에 따라 烏丁 또는 歐汀이라고 적었다. 潮汕 방언에 ‘鷓汀’과 ‘烏丁’, ‘歐汀’은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鷓汀은 이곳에 바다 갈매기(海鷓)가 서식하는 모래톱이 있었던 데에서 나왔다. 오늘날 행정구획으로 汕頭市 龍湖区 鷓汀街道가 설치되어있다. 鷓汀街道의 면적은 15만km²이고, 인구는 5.4만 명이며, 소속 관할지에 18개 거위회가 있다. 구정은 예로부터 상인과 여객들이 모여들었다. 매계를 따라 내려가면 오늘날 국제항인 汕頭港 앞 바다가 나온다. 원 至正 연간에 지역민들은 해적을 방비하기 위해 성채를 쌓아 鷓汀背寨라고 불렀다. 명 隆熙 연간에 지역민들이 다시 성채를 건설했다. 성채 길이는 약 450丈이고, 너비는 약 100丈이다. 이곳은 外砂河, 新津河, 梅溪의 길목에 위치하여 외적들의 수로를 통한 조주 공략이나 육로를 통한 揭陽 공략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명청 교체기에 성채 도주가 자주 남명 정성공 군사의 운반선을 급습하며 저항하다가, 훗날 정성공의 침략에 의해 성채 수만 명이 살해되는 역사적 비극의 현상이었다. 구정채의 옛 자리에는 청 1737년(건륭 2)에 辛昌五 등이 건립하여 이듬해 완성한 騰輝塔이 남아있다. 이 탑은 일명 歐汀塔이라 불린

4)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9 <戶部·關稅·禁衛> 중 강희 23년조 참조.

5)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629 <兵部·綠營處分例·解禁> 강희 42년조, 56년조, 59년조 등 참조.

다. 구정항은 오랫동안 물자 운송과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항구 역할을 하였으나, 청말 수심이 깊은 汕頭港이 개발됨으로서 항구 기능은 완전 잃어버리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산두 공업 지대의 배후지로 발전했다.

조주 출항선은 오정(구정)항에서 주로 남방에서 생산되는 각종 화물을 실었다. 화물 목록을 보면, 烏白砂糖(흑설탕과 백설탕) 2천担, 白方絨 2천疋, 紅白縐紗 2백疋, 약재 20包, 大米 1백担 등이다. 표류 상선은 인근 지역인 남오에서도 일부 화물을 실었다. 남오는 광동성 동부 산두 앞 바다에 37개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가장 큰 섬은 106.85 km²를 가진 남오섬이다. 행정구획상 오랫동안 조주부와 장주부의 관할에 있다가 근자에 들어와서 광동성으로 이관되고, 최근에 산두가 조주에서 분리되면서 산두시 소속의 현으로 편입되었다. 이곳은 “潮汕 지역의 병풍이고, 민월 지구의 목구멍(潮汕屏障, 閩越咽喉)”라는 말처럼 해상교통의 요지로서 예전에 동남 연해안과 대만과의 통상에 있어 필히 들렀던 정착지와 중계지였다.

조주 출항선이 들렀던 남오항은 오늘날 남오섬 동북쪽에 위치한 深澳港을 지칭한다. 이곳 深澳灣은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천연 항구를 갖추고 있다. 명청 시대에 이곳은 수군 요새로 사용되었다. 명 만력 연간에 심오에 總鎮府를 설치하고 漳, 潮 부총병이 각각 좌우영을 운영했다. 좌영은 복건 해역을 관장했고, 우영은 광동 해역을 관장했다. 1685(강희 24)에 심오에 총병 본부를 두었다. 초대 총병관은 楊嘉瑞이다. 總鎮府 앞에는 바다의 신인 媽祖를 모시는 天后宮이 있다. 천후궁은 1576년(명 만력 4)에 부총병 晏繼芳이 세우고, 1685년(강희 24)에 총병 楊嘉瑞이 증수했다. 조주 출항선은 심오에서 화물들을 선적하는 것 외에 출항 수속과 종교 의식을 거행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총병 본부로부터 절강 등지로 떠나는 출항 허가서를 받고, 또 천후궁에 나가 항해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를 올렸을 것이다. 1699년(강희 38)에 남오총병 周鴻升의 수연 때 만들었던 <慶壽金漆貝雕面屏風>(현 프랑스 개인소장의 그림을 보면 당시 심오 앞 바다에 많은 배가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27년(민국 16)에 현정부는 심오에서 隆澳, 즉 현재 현정부 소재지로 옮겼다.

조주 출항선은 남방 화물을 싣고 蘇州, 南京 등지에 나가 인삼, 목화 靑藍布, 白糸 등으로 교역하려고 했다. 이번 항해의 항로와 과정을 헤아

려보면 조주 오정(구정)항에서 출발해서 인근 남오로 갔다가, 다시 남오에서 북쪽으로 북건과 절강 연해안 해역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타도에 도달했다. 보타도에서 물자를 일부 하역하거나 선적하고 또한 몇 명의 영파객상들을 태우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장강과 운하를 통해 소주로 나가 물자를 교역하려고 했다. 이번 항해에 남오항에서 보타도까지 걸린 일자는 6일이고, 보타도에서 소주까지는 걸리는 일자는 통상적으로 9일정이라고 했다. 보타도에서 소주까지의 항해거리는 남오에서 보타도까지의 항해거리에 비해 월등하게 짧으나, 소요일자가 더 많이 걸린다. 이것은 당시 선박의 항운 능력과 관련이 있다. 장강 하류에는 유속이 빨라 당시 선박으로 직접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고, 장강 유역에 거미줄같이 뻗어있는 내지 운하를 통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보타도에서 소주로 가는 소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조주 출항선은 寧波府 部衙에 나가 해상 교역을 허락하는 文狀을 취득했다. 보타는 영파부 관할 지역이다. 영파부는 송나라 때 대외 해상 교역과 세금을 징수하는 市舶司를 설치했고, 청나라 초기에 市舶司는 海關으로 바뀌었다. 部衙에는 戶部郎中 1명을 두었는데 이곳에서 文狀 발급과 상품거래세금을 징수했다. 《비변사등록》 <제주표한인문정별단>에 의하면 영파부에서 낭중을 두고 세금 징수하는 법령이 1683년(강희 22)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징세 방법은 선적 상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데, 당시 징세 비율은 상품 시세의 3.3%를 받았다. 文狀은 해상 교역과 운송을 허락하는 증명서이다. 문장에는 선적 크기, 승선자 성명과 인원수, 화물의 도착지, 출항 일자 등 항해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적혀있다. 조주 출항선의 표류인들이 조선에서 본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지난 제주 관아에 받친 영파부 部衙의 文狀을 돌려받기를 간절히 청했다.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文狀이 있어야 만이 해역을 맘대로 돌아다녔다는 죄를 면할 수가 있다고 했다. 당시 청나라는 海禁 정책을 방금 풀었던 시기이라 文狀이 없으면 엄한 처벌을 했다. 앞서 논했듯이 당시 선박 크기와 항운 필요 물품까지 규제해가며 해상 활동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했다.

四. 潮州 출항선의 표류와 송환 과정

조주 출항선은 보타에서 떠난 지 이틀 만에 악천후를 만나 표류하게 된다. <수본>에는 조주 출항선이 표류한 시점을 6월 18일 아침으로 적고 있고, 《비변사등록》 <제주표한인문정별단>에는 6월 23일 밤에 해상에서 갑자기 서북풍을 만나 표류했다고 했다. 조주 출항선의 항해 일정으로 보아 표류 장소는 장강 입구 해역 부근으로 추정된다. 장강 입구의 해역은 물살이 세고 거칠기 때문에 자주 해난사고가 일어나 항해 선박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간다. 북송 사신 徐兢이 배를 타고 고려국으로 가는 과정은 보타에서 출발하여 절강 연근해의 白水洋, 장강 입구 해역의 黄水洋, 황해 흑조 해역인 黑水洋을 거쳐 한반도 서쪽 黑山島 옆으로 지나갔다. 서궁도 한반도에서 보타로 돌아올 때 黄水洋에서 조난을 당할 뻔했다.⁶⁾

조주 출항선은 장강 입구 해역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악천후로 인하여 돛대와 노가 파손되어 자체 운항 능력을 잃어버렸고, 그 후 바람과 해류가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용케 제주도 연해안에 도달하게 된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 바다에 속해있는 한국 최대의 섬이다. 이 섬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 대륙,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길목에 자리잡고 있다. 예로부터 이곳은 외국과의 활발한 해상 교통이 전개되고 있었고, 또한 이곳으로 표류해온 외국 선박들이 잦았다.

여름에 필리핀 북쪽에서 발생하는 쿠로시오(黑潮: kuroshio) 해류는 비교적 따뜻하고 유속이 빠르며 동북쪽 방향으로 여러 지류를 형성한다. 남중국해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류는 대만해협을 지나 장강 유역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와 한반도와 제주도로 흘러가고, 그 중의 일부 지류는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해서 발해만까지 올라간다. 한중 해역의 계절풍을 보면 여름에는 주로 풍력이 약하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서궁이 고려국으로 갈 때가 5월말에서 6월초이고, 조주 출항선이 표류한 시기가 6월 중순에서 6월말이다. 浙東 지역에서 일본열도로 갈 때 6월경에 출발하는 선박이 가장 많다. 이들 선박은 모두 쿠로시오 해류와 남풍을 활용했던 것이다.

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 <海道一> 및 39 <海道六> 참조

조주 출항선은 제주도 해안으로 상륙하기 바로 직전에 암초나 바위에 걸려 선체가 완전 부서졌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에 빠져 혹은 깨진 나뭇조각을 부둥켜안고, 혹은 돛(篷) 조각에 붙어 물결에 따라 간신히 육지에 도달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선적 화물도 대부분 유실되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들 표류인을 구하여 제주 관아에 표류 사실을 보고 드렸고, 제주 관아는 즉시 조정에 보고를 드렸다. 이때 표류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영과부 部衙의 文狀은 제주 관아에 바쳤다. 표류인들은 두 달 동안 제주도에 머물면서 조선 조정으로부터 귀국 송환을 허락하는 훈령을 기다렸다.

조선 조정은 제주도에 남방 표류인이 표착했던 보고를 받고 여러 조치를 취했다. 7월 30일에 비변사가 표류인을 멀리 한양으로 호송할 때 역관이 필요하다며 사역원에서 漢語 역관 1명을 급히 해당 지역으로 내려 보내고, 훗날 표류인들을 북경으로 호송시키고 咨文을 올린 역관을 택해줄 것을 숙종에게 啓聞했다. 이에 숙종은 윤허했다. 이러한 啓聞은 일종의 관례였다. 1687년(숙종 13) 4월 17일에도 제주도에 표착한 남방 표류인의 호송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문했고, 이에 숙종은 윤허했다.⁷⁾

사역원은 제주도에 표착한 남방 표류인들을 한양으로 호송해올 역관으로 김지남을 간택했다. 김지남은 명을 받은 후 즉시 한양을 출발하여, 8월 11일에 海南에 도착했다. 그는 해남 땅에서 머물면서 표류인들이 제주도에서 이송해오기를 기다렸다. 9월 3일에 해남 於蘭鎮에 표류인이 도착했다. 김지남은 즉시 해남 관사에서 어란진으로 나가 이들을 맞이했다. 어란진은 해남 남쪽 끝자락 바닷가에 위치하고, 오늘날 행정구획으로 전남 해남군 松旨面 於蘭里이다. 지형이 난초처럼 생겼다고 어란이라 불렀다. 이곳에는 오목 들어간 널따란 포구가 있어 해상 교통과 군사 요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전에 포구에는 연근해 고깃배와 남해도서, 제주도를 오가던 배들이 가득 찼다. 조선 수군은 이곳에 진을 설치하고 萬戶를 두어 주변 해역을 관장했다. 정유왜란(1597) 때 李舜臣이 鳴梁大捷을 거두기 직전에 수많은 일본 군선들이 이곳에 집결했다.

9월 3일 밤 김지남은 표류인을 데리고 多恨橋站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7) 《承政院日記》 원본 책330: 탈초본 책17; 《備邊司謄錄》, 숙종 14년 7월 30일(경자)조 참조.

해남현 관사로 옮겨가서 표류 사정을 탐문했다. 현존본 <手本>에는 多恨橋를 多限橋로 오기했다. 다한교는 일명 단다리, 단더리라고 부르고, 오늘날 해남군 梟山面 古栗里 서쪽 어귀, 곧 多恨橋坪 위쪽에 소재한다. 다한교는 예전에 바닷물이 이곳까지 드나들어 선착장으로 이용되었다. 중국 대륙으로 가는 배가 이곳에서 떠나갔는데, 뱃길이 멀고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므로 떠나는 이나 전송하는 이들이 哀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전해온다. 1409년(조선 태종 9)년에 이곳에 해남과 珍島를 관할하는 海珍縣 치소를 두었다가, 1437년(세종 19)에 해남은 진도와 분리하여 치소를 현 해남읍으로 옮겼다. 9월 5일에 김지남은 표류 사정을 적은 <手本>을 조선 조정에 올려 보냈고, 9월 6일에 靈巖郡守 李行周와 함께 표류인을 호송하여 한양으로 향했다.

한편 조선 조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전 조치를 취했다. 9월 6일에 備邊司 郎厅은 표류인 처리에 대한 영의정 南九萬의 뜻을 승정원을 통해 숙종에게 계문했다. 영의정 남구만은 統制使 李世選이 표류인 성명 거주지, 선적화물, 文狀 등을 기술한 謄本과 狀啓를 보니 중국 남방 상선이 여러 곳을 왕래하며 교역을 하다가 표류했던 사실이 맞으니, 전례에 따라 청나라 북경으로 이 사실을 적은 咨文을 보내고자 했다.⁸⁾

9월 15일에 副承旨 李思永은 표류인들이 며칠 안에 한양으로 올 것이니 사전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는 비변사의 뜻을 숙종에게 계문했다. 표류인들이 머물 숙소는 南別宮으로 정하고, 남별궁 家丁은 이들이 머물 숙식 채비를 하도록 했다. 남별궁에 禁軍 1인과 衛軍 10여명을 두어 외부 雜人들이 출입하는 폐단을 단속시키고, 비변사 낭청은 표류인의 표류 사정을 탐문하여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했다. 표류 사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역관으로 하여금 표류인을 호송하여 요동 鳳凰城으로 교부한 다음 北京에 가서 청나라 조정에 咨文을 전달하게 하도록 했다. 남별궁은 선조 때 왕자 義安君의 저택이었고, 임진왜란 후에는 주로 중국사신의 영빈시설로 사용되었다.⁹⁾

9월 19일에 비변사는 한양에 도착한 표류인을 남별궁에 머물게 하고,

8) 《승정원일기》 원본 책331: 탈초본 책17;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9월 6일(을해)조 참조.

9) 《승정원일기》 원본 책331: 탈초본 책17;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9월 15일(갑신)조 참조.

郎厅과 訊官이 표류 사정을 탐문하러 간다는 계를 올렸다. 9월 20일에 비변사는 표류인에 대한 문정을 마쳤고 22일에 한양을 떠나도록 의복과 비용을 보낼 것을 청하는 계를 올렸다. 의복은 호부에서 전례에 따라 공급하고, 소요 비용은 표류인 1인당 은자 2량씩이며 호송인이 표류인이 평안도를 지날 때 平安監司에게 주도록 했다.¹⁰⁾ 9월 22일에 비변사는 표류인들이 오늘 떠났으나, 咨文을 正書하지 못했으며, 도중에 禁軍을 통해 보낼 것을 청한다는 계를 올렸다. 비변사가 올린 각종 계문은 숙종이 모두 윤허하거나 알았다고 답변했다.¹¹⁾

김지남은 조주 출항선의 남방 표류인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해상정책과 鄭成功 일족의 反淸 활동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남방 표류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鄭之鼐가 대만을 점령하고, 때때로 천주, 장주, 조주, 복주 등 연해안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자 청나라는 강력한 海禁 조치를 취했다. 鄭之鼐는 명나라 조정의 무신이고, 청나라가 大統을 얻은 뒤로 이에 대항하여 대만으로 이주하여 자칭 世藩王이라 하고 永曆 연호를 썼다. 鄭之鼐가 죽은 뒤 그의 아들 国信, 국신이 죽은 뒤 그의 아들 錦壽, 금사가 죽은 뒤 그의 아들 克燾이 계승했다. 경신년(1680년; 강희 19)에 극상이 청나라에 귀순하자, 청나라 조정은 그를 漢軍公으로 봉하고 북경에 머물게 했다. 1682년(강희 21)에 비로소 해금 조치가 풀어 상선들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다.

조주 출항선 표류인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만, 일부 역사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鄭之鼐는 鄭芝鼐의 오기이다. 정지룡은 명나라 무신 출신으로 한때 청나라 침공에 대항했으나, 끝내 청나라에 귀순했다. 대만을 점령한 이는 정지룡이 아니고, 그의 아들 정성공이다. 정성공의 원명은 森이다. 그는 부친의 청나라 귀순에 반대하고 反淸 전쟁을 계속 수행했다. 그는 한때 대륙남부 연해안 지역을 점거하고 장강 유역인 남경성까지 진출하는 등 강한 세력을 구축했으나, 얼마 후 대륙남서부에서 저항하고 있던 명의 잔존 세력이 멸망하고, 청나라 군대의 대규모 공세에 잇달아 패전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졌다. 그가 죽기 직전에 네덜란

10) 《승정원일기》 원본 책331: 탈초본 책17;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9월 19일(무자)조 참조.

11) 《승정원일기》 원본 책331: 탈초본 책17;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9월 22일(신묘)조 참조.

드가 점거하고 있던 대만을 쳐서 군사 근거지를 대만으로 옮겨 정씨 왕국을 세웠다. 표류인이 언급한 国信은 정성공을 지칭한다. 국신이라는 이름은 대만인과 네덜란드인이 정성공을 가리켜 “Koxinga” 또는 “Coxinga”, 즉 “国姓爺”에서 나왔다. 南明 隆武帝는 정성공에게 황실과 같은 朱姓을 하사했다. 남오 南澎列島의 中澎島에는 정성공 군대가 물을 취하기 위해 우물을 팠다는 国姓井이라는 유적이 남아있다.¹²⁾ 錦壽 또는 錦은 정성공의 장자인 鄭經의 애칭이고, 克塽는 정경의 장자이다. 정극상이 청나라에 투항한 시기는 1683년(강희 22)이지, 표류인이 말한 경신년(1680년; 강희 19)이 아니다.

한편 조선 조정은 연행 사신과 청나라 표류민을 통해 정씨 일족들이 대만을 점거하여 대청 항전을 하다가 끝내 청나라에 귀순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다. 1674년(숙종 즉위년)에 陳慰使 李滌 등이 보낸 馳啓에서 정금과 吳三桂가 수록 양면으로 대청 항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¹³⁾ 1674년(숙종 1)에는 조정에서 정금에게 사신을 보내는 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¹⁴⁾ 1681년(숙종 7)에 한반도에 표류한 청나라 사람 高子英 등이 얘기한 중국 정세에서 鄭國臣이 대청 항전을 거듭하며 남경까지 진출했고, 끝내 청나라 군대에 패전하여 臺環으로 들어가 스스로 城池를 조성하고 영락 연호를 사용했으며, 그의 아들 鄭錦이 계승하여 대만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¹⁵⁾ 여기서 鄭國臣은 鄭國姓에서 변형된 이름이며, 즉 정성공을 가리킨다. 대환은 臺環을 지칭한다. 숙종 9년(1683)에 冬至使 趙師錫이 올린 치계, 1684년(숙종 10) 夏至使 조사석 등이 언급한 말, 告訃使 李濡 등이 언급한 말 등에서 정극상이 청나라로 귀순했던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¹⁶⁾ 한어역관인 김지남도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사역원에서나 사행 과정에서 정씨 일족의 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번에 남방 표류인을 탐문하면서 그간 사정이 어떠한가를 물었다. 1655년(순치 12)에 청 浙閩總督 屯泰가 정성공이 이끄는 수군이 연해안

12) 《南澳縣文物志》，天馬出版有限公司，香港，2004.12，쪽105.

13) 《肅宗實錄》，숙종 즉위년(1674) 11월 7일(병인)조 참조.

14) 《숙종실록》，숙종 1년 4월 1일(기축)조, 2일(경인)조, 3일(신묘)조 등 참조.

15) 《숙종실록》，숙종 7년 8월 7일(정해)조 참조.

16) 《숙종실록》，숙종 9년 12월 22일(기미)조, 10년 3월 14일(경진)조, 6월 18일(임자)조 등 참조.

각지를 드나든다며 해금조치를 내릴 것을 주청하자, 청나라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듬해 청나라 조정은 민간 선박의 해금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했다.¹⁷⁾ 1661년(순치 18; 강희 즉위년)에 청나라 조정은 연해안 지역민을 내지로 이주시켰다.¹⁸⁾ 1679년(강희 18)에 정씨 왕국이 활동하는 대만 해협과 먼 거리에 위치한 산둥, 강소 등 지역에 대해 적재량 1,2백 석의 소형선박의 해상 통행을 허락했다. 1683년(강희 22)에 정극상의 투항으로 대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1684년(강희 23) 4월에 조정은 해상 통행을 적재량 5백 석 이하 선박으로 확대했고, 이해 9월에 閩越 해역에서도 이와 같은 해금조치를 풀었다.¹⁹⁾ 그런데 조주 출항선의 표류인은 청나라 해금조치가 풀린 연도를 1682년(강희 21)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예로부터 해상 물자교역은 험한 바다를 건너야 했으므로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상거래 이윤이 많이 남는 만큼 상인과 뱃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 길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의 연해안 정세는 해상 물자교역으로 많은 상거래 이윤을 추구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성공 일족이 대만을 점거할 시기에 청나라 조정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복건과 광둥 일대에 지역민들을 모아 대규모 군대를 편성했다. 훗날 정씨 일족이 청나라로 귀속해오고 복건과 광둥 연해안 지역이 평온을 찾게 되자, 청나라는 이 지역에 더 이상 많은 군대가 필요 없게 되어 대규모 병력 감축을 실시하여 많은 군인들을 강제 퇴역시켰다.

당시 복건과 광둥 연해안 지역은 한때 정씨 일족의 세력이 장악했던 곳이다. 청나라가 대만평정을 한 후에 정씨 왕국의 군인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정씨 군인들은 강제 해산한 후에 대만에서 자기 고향인 복건과 광둥 연해안으로 대거로 귀향했다. 복건과 광둥 연해안 지역에는 정씨 왕국과 청나라 군대에서 강제 퇴역을 당한 군인들로 가득 찼다. 이들 군인 출신들은 육지에서 살아갈 방도가 별달리 없게 되자, 청나라 조정의 해금 해제조치에 편승되어 너도나도 바다로 뛰어들어 장사에 나서게 되었다.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자 상거래 이윤도 저절로 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7) 《淸世祖實錄》 순치 13년 6월 계사일조 참조.

18) 《淸聖祖實錄》 순치 18년 8월 기미일조 참조.

19) 《淸聖祖實錄》, 강희 23년 4월 신해일조, 강희 23년 9월 갑자일조 및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 권239 <戶部·關稅·禁衛> 중 강희 23년조 참조.

財主 沈電如, 財付 陳梓, 財付 劉鳳은 원래 대만 왕국을 뒤이은 정금 소속의 營將과 部將이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정씨 일족을 따라 반청 활동에 나섰다. 이들도 다른 정씨 왕국의 군인들과 함께 강제 퇴역을 당했다. 이들도 육지에서 모생하기 힘들어 험악한 바다로 뛰어들어 물자교역에 나섰다. 해상 교역에서 벌어들인 이윤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엔 기상 악화로 표류라는 흉악한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표류 상선이 제주도 연해안에 도달하기 직전에 파손되어 선적했던 화물들이 바다 속으로 빠졌고, 이 중에 파도에 떠밀려 육지에 올려온 화물은 白方紬 20필, 石蟹 반포, 甘草 반포, 八角香 2포, 火爐 2개, 斧子(도끼) 2개, 鑿子(송곳) 2개, 打錘(징) 2개뿐이었다. 이 숫자는 오정(구정)항에서 실은 화물량에 비해 대략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四. 결론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광활한 대양을 접하고 있어 일찍부터 매우 활발한 해상 활동을 전개했다.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해상교류 중에는 표류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선박 표류 자체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국 사이에 표류인 구휼 시스템이 정비되어있어 본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다.

본 논문은 1688년(조선 숙종 14; 청 강희 27)에 발생한 중국 남방인의 표류 과정과 송환과정, 양국 정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1688년에 潮州 烏丁(鷓汀)항에서 출항한 선박이 절강 普陀를 거쳐 강소 蘇州로 향하다가 악천후를 만나 표류하다가 한반도 제주도 해안으로 표착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金指南의 <手本>, 조선 조정의 《承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에 수록되어있다.

조주 출항선은 조주 烏丁(鷓汀)港과 절강, 강소 지역을 오가며 물품 교역과 운송을 하는 상선이다. 선박에는 모두 63명이 타고 있었으나,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기 직전에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15명만 생존했다. 船戶는 옛 조주부와 장주부 관할인 南澳 출신이다. 선원은 조주 출신이 가장

많고, 그 인근 지역인 漳州와 泉州 출신들로 주로 구성되어있다. 재주, 재부와 객상들도 조주, 장주, 천주 출신들로 주로 구성되어있다. 재주와 재부는 예전에 대만 정씨 왕국에 소속된 營將과 部將이다. 이들은 강제 해산을 당한 이후에 모생을 위해 바다로 나가 교역에 나섰다. 오정(구정)항에서 실은 화물은 烏白砂, 白方紬, 紅白縐紗, 약재, 大米 등이다. 선박 건조는 영과부 보타에서 이루어졌다.

조선 조정은 조주 출항선 표류인을 구휼하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데 여러 조치를 취했다. 한어역관 김지남은 海南으로 나가 표류인의 표류사정을 탐문하고 한양으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연해안 지역에 이루어진 해상 정세와 물자 교역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備邊司는 관례에 따라 표류민들을 한양 南別宮에 머물게 하고, 청나라 北京에 咨文을 보내고 의복과 비용을 마련해서 鳳凰城으로 송환시켰다.

이번에 조선 제주도에 표착한 청나라 선박이라는 단일 사건을 통해 양국의 해상 정책과 보호 과정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데 의의가 있다. 당시 조주를 기점으로 삼아 중국 연해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자 교역하는 중국 주요 항구의 지역학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당시 정씨 왕국의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청나라 해군 정책의 일환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에서 청나라 표류인을 구휼, 심문, 이송, 송환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양 질서와 보호를 위해 국가 간에 일정한 시스템이 가동시키고 있는 역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燁燻之樂室; 赤猪 良月 辛未]

참고문헌

- 金指南纂, 《东槎日录》(《(国译)海行摠载》), 民族文化推进会 서울, 1975, 쪽53~55.
 朝鮮備邊司編, 《備邊司叢錄》,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59, 책4 쪽144~153.
 昆岡等修, 劉啟端等纂, 《(光緒)欽定大清會典事例》(《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5, 책801 쪽815, 책807 쪽753~760 등.
 淸實錄官修, 《淸實錄》, 中華書局, 北京, 1985, 책3 쪽778~9, 책4 쪽84 등
 南澳縣文化體育局·南澳縣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編, 《南澳縣文物志》, 天馬出版有限公司香港, 2004, 쪽105.

Abstract

Analysis of Chaozhou(潮州) Vessel was Cast Ashore at Jeju(濟州) Island of Chosun(朝鮮) in 1688

Park, Hyun-Kyu

In 1688 Chaozhou(潮州) Vessel was cast ashore in Jeju(濟州) Island on a way to avoid a wild sea state. She was a merchant ship for transporting market things among three provinces, Guangdong(廣東), Zhejiang(浙江), and Jiangsu(江蘇).

There were 63 crews and business people in the ship, mostly from Chaozhou, Zhangzhou(漳州), and Quanzhou(泉州). Only 15 people on the ship could be rescued and lest of them were died by the storm before they arrived at Jeju Island.

The Chosun government sent Kim Jinam(金指南) to the Jeju, who were a government official and Chinese interpreter as well, then asked him to care the rescued and investigate the accident. Then a few days later the government informed the accident to the Qing(清) by a question paper via Seoul and sent the rescued back to Fenghuang castle(鳳凰城). The case of Chaozhou Vessel at Jeju was recorded on Subon(手本) written by Kim Jinam,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and Bibyeonsa deungrok(備邊司謄錄) by written Chosun government.

주제어 : 金指南,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濟州道, 漂流人, 潮州, 漳州, 泉州, 普陀

Key words : Kim Jinam, Seungjeongwonilgi, Bibyeonsadeungrok, Jeju Island,, Chaozhou, Zhangzhou, Quanzhou, Putuo

투고일 : 2008년 2월 27 일

심사일 : 2008년 3월 5 일

심사완료일 : 2008년 3월 13 일